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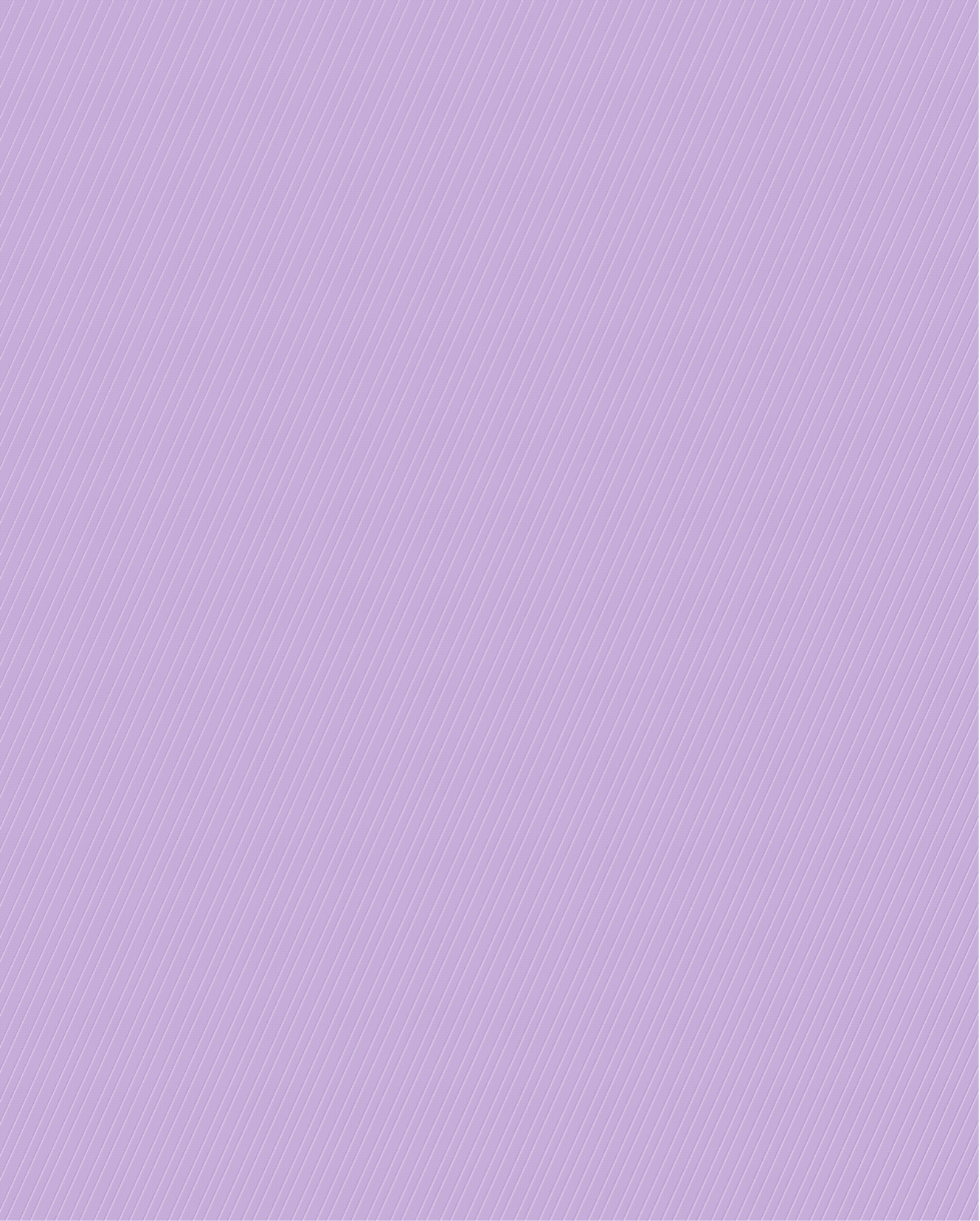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세상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미디어
진로

예비교원 대상
유아교육과/음악과
레저스포츠 계열/간호학과

I. 디지털 미디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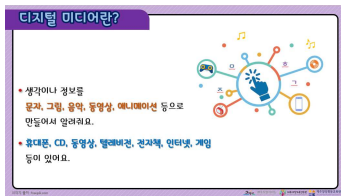
디지털 미디어



01.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디지털 미디어) 초등 3학년 양성평등 디지털 미디어교육				
교육 목표	-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이 양성평등한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교육원리	1.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성별(성역할) 고정관념이 포함된 사례를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직접 찾아보도록 한다. 2) 찾은 사항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여 3) 궁극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시 직접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잘못된 디지털 장비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직접 생각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1) 디지털 장비 활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인지하고 2)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 요구사항 등의 대처방안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대상	초등 3학년	대상 규모	교실, 강당 등	소요 시간	80분 내외
교육 방법	표준강의안(PPT)를 활용한 강의와 활동				
교육자료	표준강의안(PPT), 지도지침서				
교육 Concept (교육명)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디지털 세상				

02. 디지털 미디어 양성평등 지도안

과정	1. 시작		
PPT	 1	 2	 3
	 4		
진행 내용	1. 제목 소개 ▶ (차시명 뜻과 목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디지털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 (강사 소개) '저는 여러분의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할 000입니다. (이하 생략)' ▶ (학습 목표) 이 활동을 통해 ❶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이 양성평등한지에 대해 말할 수 있고, ❷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정	2. 도입		
PPT	 5	 6	 7
진행 내용	2. 도입 ▶ (과정명)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초성 퀴즈 ▶ (활동 안내) (슬라이드 6) * 유튜브라는 답을 무엇을 보고 찾아냈는지 물어봅니다. - 간단한 초성 퀴즈를 통해서 1인 미디어에 대해 많은 학생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글보다 이미지가 먼저 인식됨을 확인합니다.
- * 유튜브와 키즈 유튜브의 앱이미지 차이를 아는지 물어봅니다.
 - 유튜브와 키즈 유튜브를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 * 유튜브를 왜 보는지? 어떤 내용의 유튜브를 보는지도 이야기 나눕니다.
 - 유튜브를 활용하여 게임 방법, 놀이동산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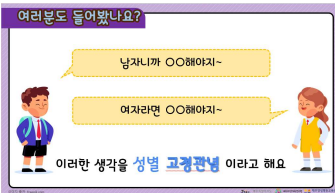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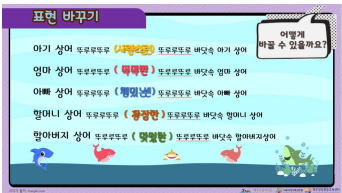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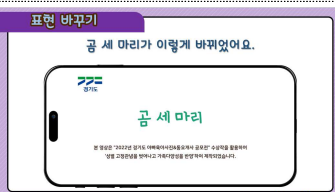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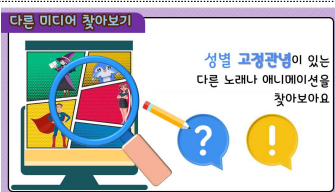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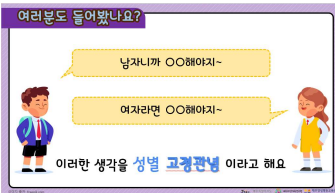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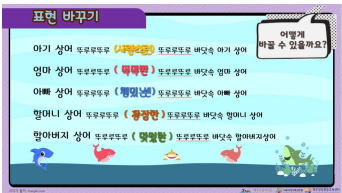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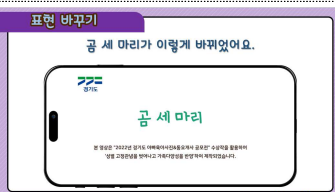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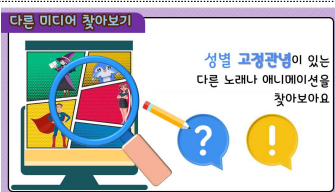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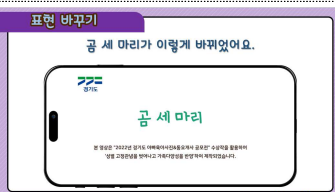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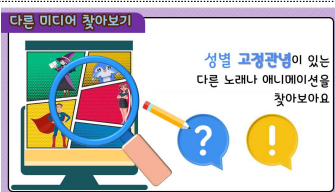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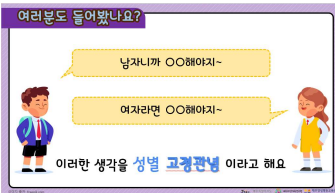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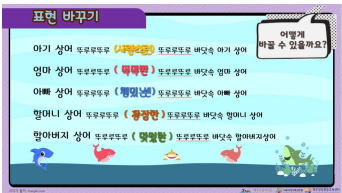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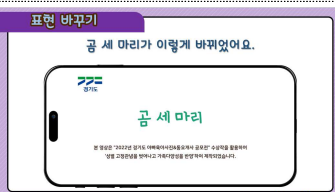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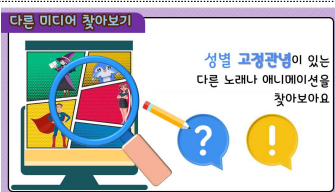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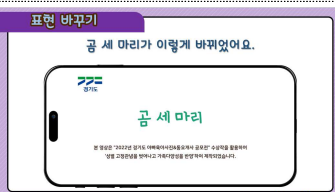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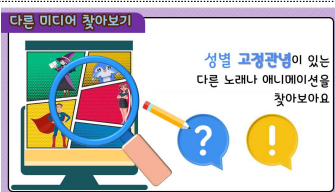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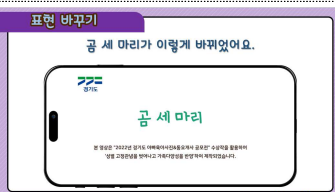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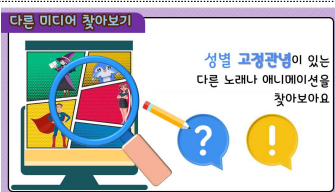
2-1. 디지털 미디어

▶ (활동 안내) (슬라이드 7)

- * 유튜브 외에도 생각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 * 이런 미디어들을 활용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 “보호자가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를 같이 보시나요?”나, “유튜브를 본다고 할 때 보호자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등 양육자들이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 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야기해 봅니다.

<Tip>

- *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사전 확인, 활용 시 학생들의 참여도 더욱 향상 가능. 특히 “로블록스(12+)”, “배틀그라운드(16+) 등

과정	3. 전개				
	 8  9  10 <tr> <td></td><td>  11  12  13 <tr> <td></td><td>  14  15  16 </td></tr> </td></tr>		 11  12  13 <tr> <td></td><td>  14  15  16 </td></tr>		 14  15  16
	 11  12  13 <tr> <td></td><td>  14  15  16 </td></tr>		 14  15  16		
	 14  15  16				

3-1. 디지털 미디어 속 양성평등 표현

- ▶ (과정명)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이 양성평등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지 물어봅니다.

- * 양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1) 표현 찾기

▶ (활동 안내) (슬라이드 9~11)

- * '상어 가족' 동요 율동 영상을 보고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보게 합니다.
- * 영상 속에서 상어의 모습(상어의 색상, 특징 표현 등)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 * 동요 율동 중 성별/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들어봅니다.
- * '곰 세 마리' 동요 율동 영상을 보고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보게 합니다.
- * 곰 세 마리는 남성과 여성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눕니다.

<Tip>

- ※ 같이 따라 부르면서 율동도 하도록 유도하여 참여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 ※ 사전에 찾아야 할 사항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 ※ 바닷 속에서 율동하는 아동이 편집되어 있음을 고지하여, 바닷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요 속 성별 고정관념 참고 자료 >

가족 구성원이 연달아 소개되는 동요 애니메이션 '상어 가족'. 이 동요 애니메이션은 지난해 10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억 건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임. 2분 분량의 상어 가족 누적 시청 시간은 2821년(15억 분)으로 '해리포터 시리즈' 전편(8편)을 총 130만 회 시청하는 시간과 맞먹을 정도임.

이 같은 높은 인기에 힘입어 상어 가족은 '국민 동요'라는 명칭까지 얻었으나 이를 둘러싼 시선이 곱지만은 않음. 아이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영유아기 시기, 이 동요가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임.

상어 가족에서 여성인 엄마와 할머니에겐 각각 '어여쁜'과 '자상한'이라는 수식어가, 남성인 아빠와 할아버지에겐 '힘이 센', '멋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가사가 보수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은 예쁘고 자상해야 하며 남성은 힘이 세고 멋져야 한다는 식으로 성역할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함.

2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는 정모 씨(28)는 "애 키우는 입장에선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아기들한테 작고 소소한 것 모든 게 영향을 주는데, 성역할을 고착화한다는 생각에 안 들려주려고 한다"고 말했음.

성별에 따라 다른 몸통 색 역시 비판받는 지점임. 엄마 상어와 할머니 상어는 몸통이 분홍색이고 아빠 상어는 파랑색이다. 이 같은 설정이 '여자는 분홍, 남자는 파랑'처럼 성적 고정관념을 심고, 여자와 남자로 구분 짓는 성별 이분법을 익히게 하며 나아가 원래 상어 색을 가진 남성형을 '기본형'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2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0)는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부모들이 단체로 '상어 가족'을 커서 보여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들려줄 때마다 딸아이가 '나는 분홍색만 좋아해야 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음. 그는 "엄마 상어에만 속눈썹이 붙어 있고, 립스틱이 발라 있는 등 여성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식의 가사도 걱정된다"고 덧붙임(중략)

출처: "어여쁜 엄마, 힘센 아빠" 성역할 고착하는 인기 동요 <머니투데이 일부 발췌, 2018. 01. 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12315121235318&type=1>

(2) 들어본 말

▶ (활동 안내) (슬라이드 12)

- * 일상생활에서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강조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 상어 가족을 표현한 단어를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도록 합니다.

<Tip>

- * 가정이나 학교에서 들어봤을 만한 성별 고정관념 예시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 주어 학생들이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토록 해 주면 좋습니다.
 - 남자는 씩씩해야 해 / 여자가 좀 얌전해야지, 왜 이리 뛰어다니냐 등
-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 55가지", "남자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 50가지" 활용

<가족 관계 속 성차별 참고 자료>

"오빠 밥 차려줘라" "여자애가 예뻐야지" "뚱뚱한 여자는 밤길 걱정 없어."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성차별 발언에 여성들이 발끈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가정의 수호신이자 예쁜 외모에 상냥하고 애교로 뚝뚝 뭉친 대상으로 강요하자 '성토대회'를 연 셈임.

한국여성민우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성 1,2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성차별 사례 4,563건을 28일 공개했음. 응답자들은 '가족 관계(23%)'와 '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15%)' '학교생활(14%)' '일터(13%)'에서 성차별을 느꼈다고 답했음

가족 관계 속 성차별은 모든 성차별 사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음. 주로 가사노동 강요와 통금 규제, 빈번한 외모 평가가 이유였음. 응답자들은 "오빠 밥 차려줘라" "왜 여자애가 애교가 없니" "너는 외모가 별로이니 공부라도 열심히 해"와 같은 일상 속 차별 발언에 시달렸다고 답했음. 일부 여성은 "남동생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대접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음.

출처 : "오빠 밥 차려줘라" 가족 간 성차별 가장 많아, 서울경제 , 2017.9.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0L7BQYJJP>

▶ (활동 안내) (슬라이드 13)

- * 교육생들에게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니다.
- * 곰 세 마리의 경우,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봅니다.

(3) 찾아보아요

▶ (활동 안내) (슬라이드 14~16)

- *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동요나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 * 자동차구조대 등에서도 남성 캐릭터가 더 많이 등장하고 여성 캐릭터는 다수 애니메이션에서 구급차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공순이 등 즐겨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도 여성은 장식을 남성은 공룡을 좋아한다는 등의 성별 고정관념이 많은 부분에서 내포되어 있음을 재차 알려줍니다.
- * 곰 세 마리는 남성과 여성의 외모에 관해 얘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곰 세 마리”를 성평등하게 개사한 “성평등한 곰 세 마리”를 시청합니다.
-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때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Tip>

- ※ 시청했던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고정관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유도합니다.
- ※ 양육 과정 중 접할 수 있는 동요나 애니메이션을 사전에 목록화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 ※ [경기도 동요 개사 공모전] 2022년 성평등 캠페인 영상 곰 세 마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구웃TV <https://www.youtube.com/watch?v=NwqEv7xdtkU>

<성별 고정관념 강화 미디어 참고 자료>

KBS 어린이 프로그램 <영동발랄 공순이와 친구들> 홈페이지 상의 송이(여아) 캐릭터 소개는 이렇다. ‘성격: 차분함, 새침함’, ‘특징 : 모험을 싫어하고, 어른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함. 레이스와 리본을 좋아하는 공주풍 소녀. 친구들과 앞에서 우아하게, 도도하게, 새침하게 정말 공주인마냥 굴지만 사실 송이는 내심 쾌활한 공순이가 부럽다.’

밤이(남아) 캐릭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성격: 밝고 씩씩함, 솔직함’, ‘특징: 공룡을 좋아함. 먹는 것,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가끔 너무나 솔직한 발언으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해서 나온 말이라 친구들도 미워하지 않는다. 커다란 공룡처럼 용감해지고 싶지만 아직은 무서운 것이 많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내용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성인들이 보는 프로그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아동기에 성차별적 메시지가 담긴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왜곡된 젠더 인식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어린이 영상 콘텐츠와 어린이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YWCA가 지난 2월 공개한 ‘표’에는 지난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케이블에서 방영된 예능·오락 프로그램과 광고, 유튜브 어린이 프로그램 등이 양성평등을 재현하고 있는 방식, 성차별적 콘텐츠 사례와 문제점 분석이 담겼다.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어린이 78.7%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유튜브를 가장 많이(94.8%) 이용하고 있었다. 본래 지상파에서 방영하던 애니메이션이 유튜브에 그대로 송출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의 젠더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 특정 장난감을 선호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남자 캐릭터가 위험에 빠진 여자 캐릭터를 구하는 구도, 외향적 특성을 사용한 성별 표현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성차별적 사례 39건 중 33건이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례였다.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영상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한 여성 캐릭터(송이)는 “예쁜 인형이랑 반짝반짝한 보석이 가득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남성 캐릭터(밤이)는 “그게 무슨 보물이야! 아마 멋진 공룡 장난감이 가득할 거야”라고 말한다. (중략)

출처 : 성별 ‘고정관념 강화’ 미디어, 어린이에게 더 위험, 미디어오늘 중 발췌, 2023.06.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65>

<꼬마 자동차 구조대> 영상에서도 남성 캐릭터인 경찰차(폴)는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지시하며 또 다른 남성 캐릭터인 소방차(루이)는 힘과 도구를 써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여성 캐릭터인 구급차(포미)는 놀란 어미 곰을 달래거나 다친 아이들을 치료하며 보살피는 역할로 등장한다. 남성은 리더십 있고 힘 있는 캐릭터로 그려지는 반면 여성들은 누군가를 보살피고 치료하는 역할로 그려지고 있다.

보고서는 “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는 시기의 어린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해독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디어에 담긴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을 학습하고 있다”며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성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다수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는 속눈썹이나 리본, 화관 등 장신구로 표현됐다.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여전했다. 여성 아동 캐릭터가 잡지를 보고 피부 관리나 화장을 하는 장면들을 비롯해, “이렇게 예쁘게 사진 안 찍어줘?”,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애를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야?”라고 묻는 대사가 등장하는 등(애니메이션 <마샤와 곰>)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도 발견됐다.

표현 바꾸기 우리는 미디어를 볼 때 -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있는 부분을 바꿔볼 수 있어요! 17	표현 바꾸기 다음과 같은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픽토그램 18	표현 바꾸기  픽토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19
표현 바꾸기  픽토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20	표현 바꾸기  우리 주변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픽토그램을 찾아 다시 디자인 해봐요. 21	표현 바꾸기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어요.  22
미디어 이용 디지털 미디어를 보거나 활용할 때  하나 이상 적어봅시다. 23	미디어 이용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약속했어요. - 게임이나 미디어의 내용에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 것은 올리지 않는다. -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은 보지 않는다. - 나이 제한을 지켜 이용한다.  24	

(4) 표현 바꾸기

▶ (활동 안내) (슬라이드 17)

- *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상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하기 전에 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뿐만 아니라, 포스터, 잡지, 유인물 등도 포함됨을 알려줍니다.
- * 미디어나 일상에서 애니메이션, 동요, 유튜브 등에서 표현된 등장인물(동물)의 역할이나 색상 외에 특정 장소나 행동, 금지 사항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 (활동 안내) (슬라이드 18~20)

- * 금지 사항, 행동 요령, 사용자 등을 빨리 알 수 있도록 간단히 표현한 그림들은 픽토그램이라 함을 알려줍니다.
- * 학교 집 주변, 등하굣길에서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 제시된 픽토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 양육 및 아동 보호가 한쪽 성별의 고정 역할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 역할 표현뿐만 아니라 색상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 색상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 * 새로운 픽토그램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Tip>

- * 픽토그램 표준 : 검정 바탕에 흰 사람 모양, 흰 바탕에 검정 사람 모양

※ 특정 색상 사용 시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거나 소방/교통 등 특정 업무 종사자들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소방 : 빨간색의 경우 위험 공간, 또는 소방 관련 시설 표시
- 교통/장애 : 구분선

<성차별적 픽토그램 참고 자료>

“왜 어른은 치마를 입었어?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의 딸인 일곱 살 이예영 양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이 손을 잡고 황색 선 안에 탑승하세요”라는 안전 표지판을 보고 수경씨에게 물었다. 표지판 속 아동의 보호자는 한결같이 치마를 입은 여성으로 묘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 가면 대부분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표지판에도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 묘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모습을 치마를 입은 여성으로만 표현한 안전 표지판. 지난 8일 베이비뉴스는 서울 곳곳을 돌면서 해당 스티커가 얼마나 많은 곳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했다.

지하철 1호선(시청역)·2호선(을지로 입구역)·3호선(을지로 3가역)·4호선(명동역)·공항철도(서울역) 등 다섯 개 노선의 역과,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두 곳, 백화점 두 곳을 확인했다. 아홉 곳의 에스컬레이터를 확인한 결과,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같은 형태의 안전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중략)

출처: “왜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베이비뉴스 중 발췌, 2020.9.23.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54>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화장실 안내표지에 대한 이같은 등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 화장실이 사용 금지된 위험시설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허튼소리는 아니다.

지난 2001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대한 픽토그램 표준안(오른쪽)이 제정됐으나 실제로는 위험·금지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픽토그램(왼쪽)이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다. 16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300종의 픽토그램이 표준화됐다. 픽토그램은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시한 그림 기호다. 이 중 다중 이용 화장실에 대한 픽토그램 표준안은 검정 바탕에 흰 사람 모양이나 흰 바탕에 검정 사람 모양이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된 픽토그램 색상은 안내용의 경우 초록색, 주의 환기용은 노란색, 소방시설 및 금지용은 빨간색이다. 나머지 픽토그램은 이 세 가지 색을 제외한 단색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화장실 픽토그램은 남자용은 파란색, 여자용은 빨간색이 대부분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여성 화장실이 사용이 금지되거나 위험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소방방재청과 외국인 등으로부터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화장실 픽토그램으로 파란색 및 빨간색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혜령 상임대표는 “남녀 구분이 쉽도록 그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두 색상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구분을 명확히 할 수만 있다면 기존 색깔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女화장실은 위험시설?”, 서울신문 중 발췌, 2005.10.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1017011007>

▶ (활동 안내) (슬라이드 21~22)

- * 주변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픽토그램을 다시 디자인해 봅니다.
- *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 아이를 돌보야 하는 사람이 여성만이 아니다.
 -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서도 쓸 수 있다 등

<Tip>

- ※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픽토그램을 사전에 프린트된 활동지를 제공, 재디자인 하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합니다.

<성평등 픽토그램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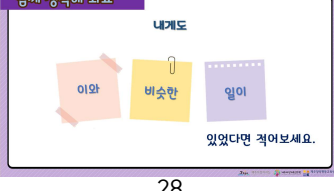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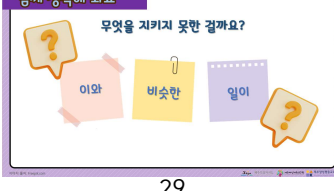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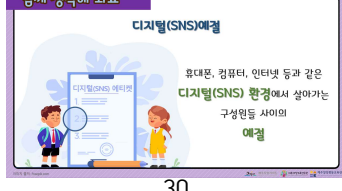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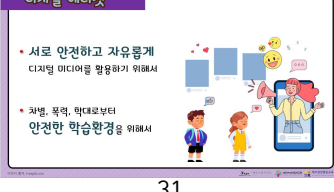
성평등 픽토그램, 2020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최) <https://sfwf-contents.weebly.com>

▶ (활동 안내) (슬라이드 23~24)

- * 각종 미디어를 이용할 때 각자 지켜야 할 사항을 적어보도록 함.

<Tip>

- ※ 연령 제한 등 제시된 사항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용 위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적어보도록 합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1) 함께 생각해 봐요

▶ (활동 안내) (슬라이드 26~27)

- * 쌍둥이 조아서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 쥘비트처럼 영상이 몰래 찍히거나 유포된다면 나는 어떨까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 학교나 가정에서 쥘비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 무엇을 지키지 못하여 동의받지 않은 촬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 없다는 경우 동의받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불법 촬영 행위는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 양육자나 형제자매일지라도 동의받지 않은 촬영은 잘못된 행위임을 상기시킵니다.
- * '불법 촬영'보다는 '몰래카메라', '몰카'가 익숙하더라도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합니다.

<영상 줄거리>

쥘비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넘어지는 장면을 조아서 등이 몰래 찍어 친구들과 보면서 재미있어 하고 유튜브에도 업로드 함.

<Tip>

- ※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담아 내기엔 지나치게 장난스럽고 가볍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어서, 따라서 배움 활동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몰카', '몰래카메라' 용어의 문제를 설명하고 '불법 촬영'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 (활동 안내) (슬라이드 28~31)

- *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공간, 세상에서도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 *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절임을 강조합니다.
- * 일상의 규칙인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현상들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과 사이버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강조합니다.
- * 모두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디지털 세상, 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 게임이나 채팅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 에티켓의 어원

- 영어로는 에티켓이라 불리는 것은 프랑스로부터 유래
- 에티켓의 어원은 옛 프랑스어인 에스티키에(estiquer)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에티켓이 된 이유는 예법이 궁정에서 각종 뜻을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크고 작은 귀족들이 하도 많은 연회를 열고 모임을 하다 보니 서열을 가려 자리에 순서를 매길 필요가 있었다. 높은 순서대로 국왕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배치하여 서열을 매기고 각각의 자리에 뜻을 붙였는데, 이를 에티켓이라 하였다.

출처 : 『한 번쯤, 파리지앵처럼: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지는 21가지 삶의 기술』

디지털 미디어 사용 사진 촬영과 SNS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아요 32	나라면 어떻게요? 단톡 친구가 내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우는 사진에 낙서를 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 나의 기분은 어떻게요? - 경우된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 단톡 친구에게 하고픈 말은 무엇인가요? - 단톡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 단톡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까요? 33	나라면 어떻게요? 친구가 댄스 연습을 위해 같이 찍은 영상을 틱*에 올렸어요. - 나의 기분은 어떻게요? - 경우된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 친구에게 하고픈 말은 무엇인가요? -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4
나라면 활동의 공통점 사진 또는 영상을 찍거나 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하고 SNS에 올릴 때 찍을 상대방의 (ㄱㅇ) 을(를) 구하지 않았습니. 35	나라면 활동의 공통점 사진 또는 영상을 찍으 때 프스 하거나 스 할 때 친구와 그 할 때 SNS에 으 때 언제나, 어디서든 반드시 상대방의 (ㅇ) 가 필요합니다. 36	이럴 땐 어떻게? 강급채팅동장으로 한강학습 가서 친구들과 생카를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뒤에 찍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난 이 사진이 앞에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요. 37
이럴 땐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도 없어서 동미를 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 그냥 올린다. X ㉡ 모르는 사람을 가리거나 표현해 주는 거야. ㉢ 모르는 사람만 저를 뒤 올린다. ㉣ 올리지 않는다. 38		

3-3. 사진 촬영과 디지털 예절

(1) 사진 촬영과 SNS 예절

▶ (활동 안내) (슬라이드 33~34)

- * 단톡방에서 낙서된 나의 사진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 단톡방에 내 사진을 올린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 * 단톡방 내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 * 낙서나 합성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 낙서나 합성은 대부분 칭찬 등의 좋은 목적보다는 놀림, 비난 등의 좋지 못한 목적으로 이용됨을 상기시켜 줍니다.
- * 합성과 보정은 다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 합성: 두 개 이상의 사진이나 이미지, 글을 합치는 것
 - 보정: 부족한 부분을 고침

<Tip>

- ※ 쉽게 복사/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한 번 유포되면 건잡을 수 없음을 강조해 줍니다.
- ※ 역할 놀이를 하도록 하여 몸으로 체득토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사과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 사과 요구 시 삭제 등 친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히 제시토록 합니다.
 - 동의받지 않고 촬영한 친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게시 자료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모두 삭제토록 합니다.
 - 다른 친구들에게도 단톡방에서 지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른 친구들은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올린 친구에게 얘기토록 합니다.
 - 단톡방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삭제해야 합니다.
- ※ 방관자가 되지 않는 주변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합니다.
- ※ 단톡방에 사진 삭제하는 법에 대해 알고 대처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변인 역할 관련 참고 자료>

뉴스를 통해, 법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약속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범죄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 교육에는 늘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한다. 방관자가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참여자로 작용할 수 있는지 교육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코지가 두려워 숨어버리기도한다.

범죄 예방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definition)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상황을 상황극으로 구성해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제지하는 행동을 교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수의 제3자들에게 '방관자의 행동도 범죄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길길거리는 방관자, 피해자가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는 방관자는 가해자만큼이나 나쁘다. 범죄는 무지와 방관을 함께 먹고 자라남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 성범죄 가해자만큼 나쁜 길길거리는 방관자들, 한국일보, 2023.0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209560000538?did=NA>

▶ (활동 안내) (슬라이드 35)

- *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 몰래 혹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진을 함께 찍었거나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Tip>

- ※ 댄스나 셀카 등을 좋아하는 학생의 경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받고 촬영한 영상(사진)이더라도 사전에 동의받거나 협의되지 않은 업로드는 잘못된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 (활동 안내) (슬라이드 36)

- * 사진/영상을 찍거나 합성, 공유, 업로드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찾게 하고 강조해 줍니다.
- *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을 경우는 모두의 동의 받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 (활동 안내) (슬라이드 37)

- * 서로가 동의받고 사진/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려 확인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찍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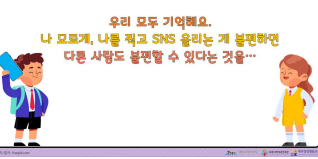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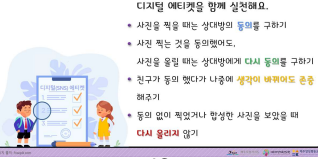
- ※ 찍기 전에 다른 사람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 (활동 안내) (슬라이드 38)

- * 특히 찍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 가리거나 흐리게 하거나, 지울 수 없다면 올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Tip>

- ※ 해당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뒤에 찍히는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 ※ 영상의 경우 편집이 어려움으로 사전에 확인 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작게 나왔더라도!!! 눈근처 알아보지 못해도!!! 지우고 SNS에 올려요. 가리거나 흐리게 하여 알 수 없게 하여 SNS에 올려요. 가리거나 흐리게 할 수 없다면, SNS에 올리지 않아요. 39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에티켓을 평상시에 실천할 수 있는 나의 행동들 1개 이상 정해져 실천해 봅시다. 40	디지털 에티켓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적었어요. • 사진을 찍을 때는 찍을 상대방의 동의 구하기 • 사진을 찍는 것을 동의했다고 판단해도 찍힌 사람의 동의없이 과잉하거나 SNS에 올리지 않기 • 사진 촬영/재경/SNS 공유해 동의했다고 판단해도, 그 이후에 동의 하거나 바뀌더라도 존중해주시기 • 사진을 공유할 때 우리가 찍은 사진에 모르는 사람이 찍혀있지 모르는 사람 얼굴을 가리고 공유하기 • 에티켓을 나와 친구 사진, 가족 사진, 모르는 사람의 사진 등 모두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을 기억하기 41
디지털 에티켓 우리 모두 기억해요. 나 모르게, 나를 찍고 SNS 올리는 게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42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에티켓을 함께 실천해요. • 사진을 찍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 사진 찍는 것을 동의했어도, 사진을 올릴 때는 상대방에게 다시 동의를 구하기 • 친구가 동의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존중 해주기 • 동의 없이 찍었거나 합성한 사진을 보았을 때 다시 올리자 않기  43	

▶ (활동 안내) (슬라이드 3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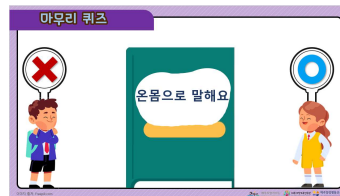
- * 각자가 디지털(SNS) 예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1개 이상 정해 적어보도록 합니다.

	<Tip> ※ 다 같이 읽어봅니다.
--	--------------------------------------

과정	4. 정리 활동
----	----------



44



45



46

4-1. 퀴즈

▶ (활동 안내) (슬라이드 44)

- * O/X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 중 강조할 내용을 함께 풀어봅니다.
- * 동의하지 않은 사진 촬영은 잘못된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 (활동 안내) (슬라이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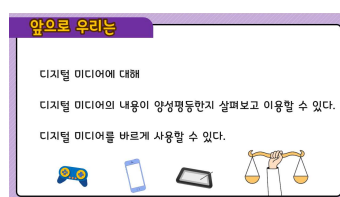
- * 재미있는 장면이더라도 동의 없이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만약 순간적인 상황이어서 미처 동의 없이 찍었다면 이후라도 찍었음을 알려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할 것임을 이야기해야 함을 주지시켜 줍니다.
- * 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찍을 당시 동의를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 촬영에 대한 동의만 받은 것이지 단톡방이나 SNS,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까지 동의받은 것이 아니다.
 - 업로드를 위해서는 업로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업로드 해야 하고
 - 동의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잘 촬영된 사진이더라도 업로드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 * 사진합성과 보정은 다름을 다시 알려줌
특히 동물과의 합성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과 같음으로 놀림,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Tip>

- ※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47



48



49

4-2. 마무리

▶ (활동 안내) (슬라이드 46~48)

- *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집니다.
 - * 게임, 애니메이션, 동화 등을 볼 때 내용이 양성평등 한지를 살펴보고 이용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미디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때 예절을 준수하여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세상 활동지 -

[활동] 표현 바꾸기

1. '상어 가족'과 '곰 세 마리'의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바꿔 표현해 봅시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	엄마 곰은 ()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	아빠 곰은 ()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	아기 곰은 ()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	

2. 제시된 픽토그램을 바꾸어 그려봅시다.

-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세상 활동지 -

[활동] 나라면 어떨까요?

1. 단짝 친구가 내가 달라다가 넘어져서 우는 사진에 낙서를 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잘못된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단짝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단톡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단톡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까요?	

2. 친구가 댄스 연습을 위해 같이 찍은 영상을 틱*이나 쇼*에 올렸어요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잘못된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자료

- “어여쁜 엄마, 힘센 아빠” ... 성역할 고착하는 인기 동요, 머니투데이, 2018. 01. 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12315121235318&type=1>
-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힘이 세?” 동요 ‘상어 가족’도 못 피해 간 편견, 베이비뉴스, 2017.12.23.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3>
- 직장인 83% “성차별 경험”...가장 듣기 싫은 말은?, 서울경제, 2019.4.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9077100004>
- “오빠 밥 차려줘라” 가족 간 성차별 가장 많아, 서울경제, 2017.9.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0L7BQYJJJP>
- 성별 ‘고정관념 강화’ 미디어, 어린이에게 더 위험, 미디어오늘, 2023.06.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65>
- 2022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서울YWCA, 23.07.10
https://www.seoulywca.or.kr/bbs/board.php?bo_table=board0304&wr_id=98
- [초등] 평등한 픽토그램디자인해보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젠더온, 2021.04.05
- “왜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베이비뉴스, 2020.9.23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54>
- “女화장실은 위험시설?” , 서울신문 중 발췌, 2005.10.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1017011007>
- 육아는 여성 몫... 성역할 강요하는 안내표지, 한국일보, 2019.06.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61531796334>
- '성평등 일러스트'란 뭘까...수상작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2020.07.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916421127997&type=1>
- 성범죄 가해자만큼 나쁜 낄낄거리는 방관자들, 한국일보, 2023.0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209560000538?did=NA>
- 디지털 성교육 만화, 한겨레신문
http://img.hani.co.kr/newsfile/new/2020/1130/h21_n.pdf
- 디지털 에티켓이란? 사이좋은 디지털프렌즈
<https://gooddigital79.org/%EB%94%94%EC%A7%80%ED%84%B8-%EC%97%90%ED%8B%B0%EC%BC%93%EC%9D%B4%EB%9E%80/>
- 초등학교학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중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고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2020.04.08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자료1 ~ 3,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2022.11.14
- 디지털 성폭력 예방 1 ~ 2, 서울특별시교육청TV 유튜브, 2021.02.23
-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자료, 경남교육(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 2020.07.10.
-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젠더온, 2020.07.23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2021.02.15.
- 사진 공유, 진짜 괜찮아? 찾아가는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젠더온, 2021.01 29

2023년 양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지도지침서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발행일

2023년 08월 31일

발행인

문순덕

주소

(63145) 제주시 연오로 54, 2층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연락처

064)712-4940~2

디자인 및 제작

(주)바론디지털교육연구소

이 지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 가능하나,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 전재, 복사, 재출판할 수 없습니다.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2023

